

박주현 "복싱 무서운 거구나" 결국 눈물

등록 2025.08.01 17:39:13



[서울=뉴시스] 이들은 1일 오후 8시 40분 방송하는 tvN 예능 프로그램 '무쇠탈녀단2'에서 복싱 스텝과 펀치 응용 기술을 배운다. (사진=tvN '무쇠탈녀단2' 제공) 2025.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지아 인턴 기자 = 배우 유이·금새록·박주현·설인아가 국내 최대 규모인 피트니스 레이스에 출전해 복서로서 한 뼉 더 자란다.

이들은 1일 오후 8시 40분 방송하는 tvN 예능 프로그램 '무쇠탈녀단2'에서 복싱 스텝과 펀치 응용 기술을 배운다.

유이·금새록은 언니팀, 박주현·설인아는 동생팀으로 참가해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아시아 최초 챔피언이자 글로벌 피트니스 레이스 아시아 신기록 보유자인 홍범석 전 소방공무원에게 코칭을 받는다.

이들은 1km 달리기·스키 등 고강도 8개 종목을 번갈아 가며 완주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무쇠소녀단은 김지훈 코치에게 응용 스텝인 '피벗' '셔플'과 상대 몸통을 공격하는 응용 펀치 기술 위아래를 전수 받는다.

여기에 김동현 단장이 '인간 샌드백'으로 등장해 이들이 타격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설인아는 "나 오늘 단장님 K.O 시킨다"며 의지를 밝힌다.

이날 박주현이 "복싱이 무서운 거구나"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등 돌발 상황도 발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ja2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